

한국-브라질, 방송미디어 분야 협력 추진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브라질 통신부 장관 및 주한 브라질 대사 간담회 -

한국과 브라질 간 방송기술 협력 및 콘텐츠 교류 등 차세대 방송미디어 분야 협력이 추진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24일 서울에서 프레데리쿠 지 시케이라 필류(Frederico de Siqueira Filho) 브라질 통신부 장관과 마르시아 도네르 아브레우(Márcia Donner Abreu) 주한 브라질 대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양국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한국의 초고화질(UHD) 상용화 경험을 바탕으로, 브라질이 추진 중인 차세대 미디어 플랫폼 프로젝트인 ‘브라질 티브이(TV) 3.0’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디지털 티브이(TV) 보다 전송 효율이 높아 초고화질(UHD) 영상 전송 및 방송·인터넷을 결합한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한 프로젝트로, 양측은 한국의 선제적인 인프라 운용 사례가 브라질 방송 환경 고도화에 실질적인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지난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하고 미국 방송표준기구(ATSC)와 공동으로 제안한 기술이 ‘브라질 티브이(TV) 3.0’ 전송 표준으로 채택된 이후 해당 기술이 브라질 미디어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양측은 또한 차세대 미디어 플랫폼의 안착을 위해서는 양질의 미디어 서비스와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술 인프라 구축과 함께 양국 간 정책 교류 확대 등 미디어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특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규 미디어 확산에 따른 환경 변화에 주목하고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 정립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기술협력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방안 등 구체적 내용을 긴밀히 협의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상황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양국 방송미디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함께 도모할 방침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세계 미디어 시장 혁신을 이끄는 중심 국가인 브라질과의 이번 만남은 양국의 혁신적 역량과 미래 비전이 결합해 남미 지역 번영을 함께 이끌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데리쿠 지 시케이라 필류 통신부 장관은 시청각 및 방송 분야에서 브라질과 한국 사이의 전략적 공조를 강조했다.

시케이라 장관은 “양국은 강력하고 역동적인 시청각 산업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브라질에서는 여전히 지상파 텔레비전이 수백만 명의 국민에게 소통 및 엔터테인먼트, 정보를 위한 핵심 채널로 남아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높은 수준의 혁신성과 기술적 진보로 인정받는 티브이(TV) 3.0 서비스 추진에 있어 한국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며 “혁신성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한국은 차세대 디지털 텔레비전 발전에 있어 브라질의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케이라 장관의 발언은 자국 국민을 위한 서비스 품질 향상과 기술 혁신 촉진에 중점을 두고 디지털 전환 및 방송 현대화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강조하고자 하는 브라질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다.

방미통위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양국 간 선진적 서비스와 기술이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 | | | |
|-------|---------|-----|-----|--------------------|
| 담당 부서 | 기획조정관 | 책임자 | 과 장 | 엄정환 (02-2110-1331) |
| | 국제협력담당관 | 담당자 | 사무관 | 이순원 (02-2110-1358) |